



입헌주의와 법치주의의 확립을 위하여 법과 인권교육을 하며, 법질서의 확립과 헌정질서의 수호를 위하여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영광스러운 제2회 대한민국법률대상 학술부문수상자로 선정해 주신 대한민국 법률대상위원회와 법률·인권교육, 입법·입법감시, 정치·사법개혁 등 법률운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법률소비자연맹의 김대인 총재님을 비롯한 공동대표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50년에 가까운 후진양성과, 학문활동을 높이 평가해 주시어 이 상을 주신 법률소비자연맹 여러분께 뜨거운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운 여건 하에서 헌정질서와 법치주의,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하여 활동하고 계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경χα하며, 그 동안 별로 도와드리지도 못하여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건국 60주년을 맞은 한국의 입헌주의와 법치질서는 아직도 후진국의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는 선진국인데 정치는 후진국이라는 평가가 있는데 지난 1년의 정치는 후진성을 넘어 야만성을 들어낸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국민의 대표를 자처하는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싆탁을 무시하고 촛불시위의 바리케이트에서 MB타도를 선동하는가 하면 국회는 팽개치고 길거리에서 시위나 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달에는 신성한 국회의 사당을 점거하고 의사당기물을 파괴하며 폭력배와 같은 46 집단폭력을 행사하여 세계의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국회의원의 행태는 헌정질서와 법질서를 파괴한 범죄자로서 처단되어야 하는데도 승리의 삼폐인을 터트리는 것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 동안 법률소비자연맹이 입법감시활동을 하여 국회질서가 잡히고 있었는데, 정권교체후에 일부국회의원이 대선과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민의를 무시하고, 폭력으로 정권을 재탈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당들은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한 것으로 해산소추가 되어야 하는데도 정부는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한심한 정부입니다. 준법의식이 땅에 떨어져 폭력혁명을 논의하면서 폭력에 의해 민주정부를 전복하려는 세력은 민주주의의 적으로서 마땅히 응징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국회의원들의 행동이 폭력배와 다르지 않는 것은 우리들 교육자의 잘못도 크

겠습니다만 그 동안 좌파정권 10년에서 오는 헌법폐해, 법치파괴의 결과라고도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은 이들 반헌법적이고 반법치주의적인 세력에 대하여 단호히 대처하여야 하겠습니다. 폭력적이고 반헌법적인 행위를 하는 이들의 죄과를 널리 홍보하여 다음에는 낙선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법률소비자연맹이 하고 있는 입법감시활동과 국회의원평가작업은 매우 시의적절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평가에만 그치지 않고 국민의 판단의 자료가 되도록 널리 홍보하여야 하겠습니다. 오늘날 불법행위를 하는 국회의원에 대한 소환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제도는 대의제민주정치상 큰 문제가 있습니다만 현재와 같은 국회의원의 탈법행위를 볼 때 정당성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국회의원의 임기를 2년으로 단축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률소비자연맹은 미국의 Common cause와 같이 지역유권자를 대상으로 출신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홍보하여 입법자의 견제를 보다 확실히 해야 하겠습니다.

사회현상에 눈을 돌려 보면 한심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과학적 근거없는 광우병을 핑계로 촛불시위를 선동하여 수많은 재산상 피해와 정신적 피해를 주었으며 국제적인 망신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대책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 여파가 최근의 언론노조, 강성노조 등의 정치적 파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치적 파업을 헌법상 금지되어 있으며 파업은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서만 인정되는 것입니다. 유례없는 경제위기에서는 노사가 공동협력하여 상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소모적인 노사대립으로 얻을 것은 실업뿐일 것입니다. 우리나라 조직노동자의 임금수준은 세계에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연봉 10만불의 노동자는 세계에 별로 없습니다. 이들이 비조직 노동자나 임시직과 고통을 나누어 가지려고도 하지 않고 기득권에만 몰입하고 있는 것은 개탄할 일입니다.

오늘 저에게 이러한 법률대상을 주시는 것은 우리나라에 만연하고 있는 반헌법적 법질서파괴적 현상의 혁파를 위한 노력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어깨가 무겁습니다. 앞으로도 이제까지와 같이 입헌주의와 법치주의의 확립을 위하여 법과 인권교육을 하며, 법질서의 확립과 헌정질서의 수호를 위하여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해주신 각계 지도자 여러 어르신들이 새해 행운과 건강을 누리시길 빌면서, 법률소비자연맹의 무궁한 발전을 빕니다.

2009년 1월 15일

대한민국학술원 회원, 서울대 명예교수 金 哲 洙



국민의 마음속에 ‘신뢰’ 라는 더 큰 법을 만들고, 정치권이 사심을 버리고 국민만 바라보면서 노력한다면 결국 국민들도 다 아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렇게 의미있는 대한민국 법률대상을 받게 되서 정말 영광스럽습니다.

저는 그동안 법률소비자연맹이 중심이 되어 매년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을 구성해서 우리나라 의회정치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 마음 속 깊이 감사하기도 하고 또한 기뻐했습니다.

이러한 대한민국 법률대상은 오히려 법률소비자연맹이 받으셔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법률대상은 국회의원인 저에게 굉장히 의미있고 영광스러운 상입니다. 더 열심히 하라는 격려로 알고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에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예외 없이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와 정치권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앞으로 우리의 미래와 국민의 삶을 좌우하는 정말 중요한 문제이고, 저 역시 무엇이 바른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입법부인 국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당연히 법을 만드는 일입니다. 그러나 개개의 법률을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 마음속에 ‘신뢰’ 라는 더 큰 법을 만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법치가 가능하고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을 수도 있고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정치권이 사심을 버리고 국민만 바라보면서 노력한다면 결국 국민들도 다 아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이런 의미있는 상을 주신 법률소비자연맹의 김대인 총재님을 비롯한 대한민국 법률대상위원회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앞으로 더욱 올바른 정치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1월 15일

전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 대한민국국회 4선의원 **朴 槿 惠**



재판의 한 길을 걸어온 것을
격려하여 주시는 뜻으로 알고
그 뜻을 길이 간직하겠습니다

먼저 법률소비자연맹의 김대인 총재님과 송기성 변호사님을 비롯한 공동대표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한 일이라고는 거의 한 평생 40년 이상을 재판관으로 근무한 것 밖에 없는데, 이
렇게 큰 상을 주시니 송구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재판의 한 길을 걸어온 것을 격려하여 주시는 뜻으로 알고 감사하게 그 뜻을 길이 간직
하겠습니다.

虔守大法 庶幾無愧

2009년 1월 15일

전 대법원 대법관, 헌법재판소 소장 金 容 俊



검사가 수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인권을 위하여도 꼭 필요한 존재라는 것이 각인되는 제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인 공직자로서 본연의 임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함에도 대한민국 법률대상 인권부문 수상자로 선정되니 참으로 영광스럽기 보다는 송구스러운 마음뿐입니다. 법조계에 뚜렷한 업적을 남기신 대선배님들과 함께 수상을 하게 되어 더욱 그러합니다.

저는 법과대학시절 일선경찰의 부당한 법집행을 여러 번 겪고 나서 교수님과 상의한 결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처음부터 검사가 될 목적으로 뒤늦게 고시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검사가 되고나서는 수사활동 특히 특수부 등의 인지수사활동에 재능(?)을 보여 검사가 되려던 초심의 자세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제3자의 음해와 모함에 빠져 현직검사로서 오히려 조사를 받게 되는 상황까지 몰리게 되자 비로소 조사를 당하는 사람의 인권에 다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사실 근대적 검찰제도의 탄생배경은 1차 수사기관인 경찰을 지휘 감독하면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피의자의 인권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통제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검찰은 종래 수사기관으로서의 위상만 강조되고 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에는 소홀한 측면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선 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어떻게 하면 검찰이 철저히 국법질서를 지키면서도 인권옹호기관으로서 제 기능을 할 것인지에 대하여 항상 고민하고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 노력의 산물이 「구속심사위원회제도」, 「피고소인에 대한 고소사건접수통지제도」, 「구속피의자 인권보호상담제도」, 「부별 사건집중검토제」, 「사생활보호 전담 검사제」 등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여러 제도들이었습니다.

새로운 제도들을 시행함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검찰 내부의 동의를

연기가 쉽지 않았으나 다행히 젊은 검사들은 이해가 빨라 비교적 빠른 시간내에 적응하고 긍정적인 자세로 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제가 시행한 일부제도는 대검찰청에서 공식적으로 전국에 채택하기도 하였으나 나머지 대부분은 아직도 제가 근무했던 검찰청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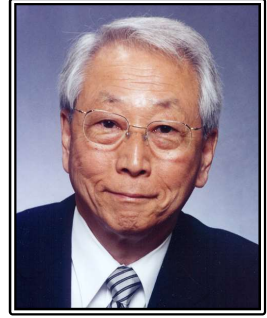
우공이산(愚公移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90세 먹은 우공이라는 노인이 자식들과 함께 마을길을 막고 있는 산을 옮겨 길을 만들겠다며 산을 파내는 것을 보고 주위사람들이 비웃었지만, 노인이 태연히 “내가 산을 옮기다 죽으면 아들이 하고, 아들이 죽으면 다시 그 자손이 대대로 이어져 산을 옮기면 반드시 길을 만들 수 있다” 며 묵묵히 흙을 날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라도 끊임없이 노력하면 성취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검찰은 오늘날 바로 우공이라는 옛 노인의 지혜와 노력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제가 수상하는 명예로운 대한민국 법률대상을 저와 함께 근무하면서 국민의 인권존중을 위한 여러 제도를 직접 수행한 일선 검사들과 공동으로 수상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오늘의 시상 사실이 국민과 일선 검찰에 널리 퍼져, 검사가 수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인권을 위하여도 꼭 필요한 존재라는 것이 각인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내빈여러분의 가정에 평화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오며, 법률소비자연맹의 김대인 총재님을 비롯한 공동대표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09년 1월 15일

전 인천·대전·창원 지방검찰청 검사장 **李 勳 圭**



우리들의 후세들이 차별과 제한을 받지 않도록 법률적인 권한 확보와 한인사회발전의 기틀이 되어 주는 것이 저의 일입니다

어려서 일찍이 조국을 떠난 본인이 조국에 아무런 공헌도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명예로운 대한민국 법률대상을 수상하게 된 것을 무한한 감사와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법률 각 부분에서 공헌이 많았던 저명한 지도자님들과 자리를 같이 할 기회가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의 항상 희망하던 전문분야는 역시 법조계였습니다. 비록 타국에서 이지만 법조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 희망이 실현되어서 항상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역사회 봉사에 참여함으로써 참다운 법조인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LA 재미동포들을 위해 우선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것은 공정한 법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또한 우리들의 후세들이 차별과 제한을 받지 않도록 법률적인 권한 확보와 한인사회발전의 기틀이 되어 주는 것입니다.

해외 여러 곳으로 한국의 문화를 알리고 경제적 활동 범위가 신장된다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빛나는 발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히 법률대상에 해외 법조계까지 포함해 주신 것은 의미 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신 법률대상은 본인 여생에 있어서 큰 의미이며 앞으로 더욱 더 열성적인 봉사를 지역사회에 펼치도록 장려해 주시는 것이라 믿고 싶습니다.

공사다망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신 내빈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깃드시기를 바라며, 아울러 김대인 총재님을 비롯한 공동대표님들께 진심어린 감사의 뜻을 전해드립니다.

2009년 1월 15일

전 한미법무법인 회장, 전 한미연합회 이사장

閔丙秀

